

# 언론의 쌀 재협상에 대한 보도 논조 분석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경제학과

조 현 주

# ■ 목 차 ■

## I.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3. 조작적 정의
  - 1) 논조와 보도 성향
  - 2) 쌀 재협상
4.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1) 연구 내용
  - 2) 연구 방법
    - (1) 분석대상 및 선정기간
    - (2) 분석기사의 선정
    - (3) 뉴스프레임의 개념
    - (4) 프레임의 구축과 분석에서의 적용

## II. 언론의 쌀 재협상에 대한 보도 비중

1. 신문 별 보도 비중 분석
2. 신문형식에 따른 보도 비중 분석

## III. 언론의 쌀 재협상 뉴스프레임 분석

1. 조선일보
2. 한겨레신문
3. 한국경제신문
4. 한국농어민신문
5. 농축산신문

## IV. 요약 및 결론

【신문형식 참고】

【참고 문헌】

# I. 서 론

## 1. 문제제기

예부터 한국은 전통적 농업 국가로서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벼농사는 우리 삶의 기반이자 문화였다. 그러나 WTO체제 출범과 DDA협상 이후, 농업은 그 기반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한국의 농업은 쌀농사마저 지난 2004년 6월부터 정부와 미국, 중국, 태국 등 농업 강대국인 9개국과 이뤄졌던 쌀 재협상으로 무너지고 있으며 이런 농촌 현실로 인하여 ‘농업상실의 시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방식이 서양화됨에 따라 식생활이 바뀌면서 쌀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다. 반면 가공용 소비량은 늘었지만 그만큼 의무적인 수입량으로 인해 쌀 재고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농촌에서는 전체 농업에서 상업적 영농과 대규모 농가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농가와 노령 농가의 비중도 증가하는 생산구조의 양극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쌀 생산비에서 토지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이나 다른 쌀 생산국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일뿐만 아니라 노력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므로 농지 가격의 하락과 기계화 촉진 등의 기술개발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쌀 가격 또한 외국쌀에 비해 훨씬 더 높은 편이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1960년대부터 1970년대 공업 중심의 발전 정책에서 희생되어야만 했던 농업은 보상받을 곳도 없이 낡아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쌀시장 개방은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다. 이것은 1차 산업인 농업뿐만 아니라 농업과 관련된 2차, 3차 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경제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또한 영세 농업국가인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 농업 강국들의 식량무기화와 식량난과 같은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지금 농촌은 세계화와 경제자유화 추세에 기업적 농업경영 국가들의 덩핑 농산물에 휩쓸려 경쟁력을 잃고 있다. 계속된 국내 농업정책의 실패로 인해 그 병폐가 이를 수 없이 깊어졌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상업적 기획을 중요시해 농업 관련 보도를 회피하고 농업 현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왜곡 보도를 일삼는 언론이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황금만능주의와 상업주의로 인한 언론 간의 경쟁은 공공사안에 대한 책임 있는 보도 대신 흥미위주의 보도를 더욱 증가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언론의 상업화를 더욱 과열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또한 정상적인 저널리즘 기능보다는 상업주의적 획일성, 오보 및 과장 보도, 불공정

및 편파보도 등 비민주적인 언론기능을 많이 보여 왔으며 현재 유착관계, 저널리즘의 실천 원칙이 가볍게 취급되는 취재관행, 언론인의 윤리의식 상실 등 한국 언론의 원칙은 자기모순으로 무너졌다.

언론의 자가당착으로 인하여 권력의 핵심조직에서 벗어나 있으며 소수에 해당되는 농업은, 자연히 언론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따라서 농업관련 보도는 언론에서 설 자리를 잃고 가뭄에 콩 나듯이 농업기사가 기재되고 있다.

2004년 12월, 쌀 재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게 되고 쌀 재협상 토론회와 서울 도심에서 있었던 농민들의 시위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언론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언론에게는 잠시 보였던 사건보도거리에 불과했으며 표상적인 보도에 그쳤다. 국민적 비판에 몸살을 앓아야 했던 정부협상단의 쌀 재협상내용으로 인한 농민단체와 국회 간의 갈등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농민단체와 정부 사이의 갈등은 단힌 사회분위기 때문에 한층 더 고조됐다. 하지만 언론조차 국민과 정부를 이어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갈등의 골을 더 깊어지게 됐다.

언론은 더 이상 농업관련의 여러 문제들과 여론을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식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역할은 언론의 몫이다. 언론은 이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와 오해를 풀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 어느 영역보다 독자성과 독립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언론에 대해 분석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쌀 재협상 문제를 다룬 신문들의 보도내용 및 보도양식을 분석하여 언론이 정부 및 다른 권력 집단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정책과정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여 여론을 유도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본다. 이것으로 언론이 여론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력을 추론하고 한국농업과 언론의 관계가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언론은 여론을 반영하는 거울인 동시에 여론을 형성하는 주체가 되기도 한다. 각 언론에 따라 논조가 다를 뿐 아니라 같은 신문 내에서도 기사를 취급하는 분야에 따라 미묘한 시각의 불일치를 보이기도 한다. 이런 언론에 기재된 기사의 논조를 분석하는 것은 각 언론이 한 이슈에 대해 보도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보도 내용을 통해 농업 문제를 다룬 각 언론의 한계와 문제점을 제시한다.

농업문제에 있어 언론의 역할을 알아보는 데는 다양한 분석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으로는 신문지면 분석과 프레임 분석이다. 지면 분석은 신문 속에서 보이는 농업에 대한 논조의 분석을 하여 언론에서 보여주는 농업에 대한 가능성을 본다. 하지만 이 분석은 언론 보도로 인한 농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으로는 아주 작은 부분을 보는데 그친다. 또한 각기 다양한 언론 매체가 등장한 오늘날에 신문 분석 작업을 통해 전체적인 농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양한 언론이 가진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 연구가 아주 개괄적이고 협소한 수준에 그칠 위험이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연구를 하는데 효과적인 프레임 분석이라는 분석 방법을 도입하였다. 프레임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텍스트의 구성이 현실의 다른 부분을 모두 배제한 채 특정한 부분만을 선택해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의 중점을 둘 수 있다.<sup>1)</sup>

또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파생시키는 복합적인 문제를 분석하는데 많은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문지영(2003)의 연구에서는 여성 관련 보도 프레임 분석을 분석했으며 박흥원(2001)의 「대북정책과 언론-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보도내용 비교분석」에서는 프레임 분석을 통해 언론 간의 논조차이를 확연하게 보여주었다. 따라서 농업이라는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보는데 이 방법의 분석이 가장 큰 효과를 보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언론이 농업문제를 기회하고 보도한 것을 분석해 언론과 현실의 모순을 파악하여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한다. 농업문제를 다루는 목적이 다른 두 언론계인 농업관련신문과 기성사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파장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규모를 가진 일간지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한편 언론 안에서는 그들 언론 사이의 이데올로기가 다른 신문을 채택하여 비교한다.

국내 신문의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과 농업에 대한 언론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미는 깊다.

### 3. 조작적 정의

#### 1) 논조와 보도성향

본 연구에서는 프레임 방법으로 틀을 나눠 매체가 가진 특정 보도 성향을 분석하고자 하며 보도 성향 중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성향을 그 매체의 논조라

---

1) 문지영(2003), 「신문의 여성 관련 보도 프레임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논문

고 정의한다. 논조의 사전적 의미는 논의하는 투, 즉 논설 경향이다. 언론사가 특정 사안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어떤 입장이나 경향이다. 객관적인 보도 외에 언론사의 입장이나 주장을 읽을 수 있는 모든 기사나 프로그램에는 일정한 논조가 있으며 매체의 보도성향을 파악한다면 논조를 분석할 수 있다.

논조는 언론사의 고유한 색깔인 동시에 이념이며 철학이다. 따라서 원칙 없이 흔들리는 파편적 보도를 일삼는 사이버 언론에는 논조라는 게 없다. 서류에 영합하거나 언론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옷을 바꿔 입듯이 언제든 논조를 바꿔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는 일관성 있는 논조가 필요하다. 이것은 사회 다양한 분야의 관계에 영향을 주며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 언론사의 논조분석 비평이 보다 적극적으로 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언론이 특정 사안에 대해 일관성 있는 논조를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논조의 방향을 분석하는 일은 매체비평의 핵심 과제이다. 논조가 바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따져 묻는 일 자체가 매체비평의 기본 임무 중 하나인 셈이다. 그 만큼 언론사의 논조 변화 분석 비평은 중요하다. 그런데도 실제로 우리 매체비평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는 언론사의 논조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작업에 소극적이다. 특정 사건이나 사안에 대한 보도태도를 비평하는 데 거의 결정적인 평가 기준으로 작용하는 논조분석과 보도성향분석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2)

## 2) 쌀 재협상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을 시작으로 2003년 3월말까지 관세와 보조금 감축에 대한 세부원칙을 수립하게 됐다. 이에 각국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미국, 일본, EU와 케언즈 그룹들이 모두 급진적인 관세와 보조금 감축안을 내놓았다. 우리나라도 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기본적으로 EU 및 일본의 제안과 유사하나 품목에 따라서 감축률에 융통성을 두어야 하고, 개도국은 선진국의 2/3수준으로 하자는 내용이다. 이러한 각국의 제안을 토대로 2월 12일 하빈슨 의장의 농업분야 협상세부원칙 1차 초안이 발표되었다. 이 안에서는 품목을 기존 관세율에 따라 고율관세, 중간관세, 저율관세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한편 UR협정에 따르면 2004년 중에 관세화 예외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여야 한다(부속서 5B의 8항). 이 때 예외 조치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양해를 해야 하고(동 9항) 예외조치가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화 방식으로 전환하되 MMA는 4%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결국 2004년의 협상은 다음 두 가지의 쟁점을 안고 있었다. 첫째, 쌀에 있어서 우리가 개도국 대우를 받을 것인가, 선진국 대우를 받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며, 둘째 4%인 MMA를 수출국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여 예외조치 연장에 합의를 얻어내느냐, 아니면

2) 김기태(2001), 매체비평다시읽기, 논조의 일관성 감시와 비평, 5월호 365호 : 129 -132쪽

관세화에 의한 쌀 수입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가 지난 한 해 논의 됐던 것이 쌀 재협상의 주요 내용이다. 2004년 쌀 재협상으로 우리의 쌀시장개방은 2014년까지 유예됐다. 하지만 이 협상 결과는 곧 그 기간 동안에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쌀의 양은 매년 늘어나고 동시에 일정부분은 국내시장에서 식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외국쌀의 시판도 허용하게 됐다. 쌀시장추가개방기간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기간으로 한다는 것과 해마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의무적으로 국내소비량의 4%수준인 20만 5천 톤(t)을 수입하였지만, 매년 수입량을 늘려 2014년에 가서는 8%수준인 41만 톤(t)을 수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외국쌀을 도입하고 있다.

이런 쌀 재협상의 바탕으로 본 논문은 2004년 이 두 가지 쟁점으로 논란이 됐던 6월부터 12월까지의 협상 내용을 쌀 재협상이라고 정의한다.

#### 4.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1) 연구내용

연구내용1. 쌀 재협상에 대한 각 언론간의 보도 비중은 어떠한가?

연구내용2. 쌀 재협상에 대한 각 언론간의 뉴스프레임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내용3. 농업에 대한 보도를 할 때 가져야 하는 언론의 과제는 무엇인가?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취재방향과 초점이 다르고 따라서 그 논조가 다른 각 언론이 쌀 재협상을 기사화하여 유도한 여론의 '틀짓기'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뉴스프레임 분석법을 사용했다. 이것은 여러 언론 간의 농업에 대한 논조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 (1) 분석대상 및 선정기간

쌀 재협상을 다룬 기사의 분석을 위해 5종의 다른 논조를 가진 신문을 선택했다.

종합 일간지로는 조선일보, 한겨레신문과 종합경제전문지인 한국경제신문을 선택했고 농업관련 언론으로는 종합농업전문지인 한국농어민신문, 농축산신문을 선정한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은 그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 간의 농업에 대한 시각 차이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한국경제신문 역시 종합경제전문지라는 매체의 특수성에 따라 농업이 어떤 시각으로 해석되며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대조 자료로 용이할 것이다. 농업관련 언론 중에서는 신문 발행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활발한 보도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한국농어민신문과 농축산신문을 선택한다.

기간은 쌀 재협상이 뜨겁게 이슈화됐던 2004년 7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6개월 간 보도됐던 기사를 분석한다. 이 기간 동안 쌀 재협상이 사회에서 상당히 이슈화되어 다른 기간보다 각종 언론의 기획 기사와 보도뿐만 아니라 논조가 잘 드러나 있는 사설과 칼럼에서도 쌀 협상에 관한 보도가 많이 되었다. 이 때문에 이 기간은 논조를 분석하는데 적당량의 자료가 확보될 것이다.

## (2) 분석기사의 선정

뉴스 전문 검색 사이트(<http://www.kinds.or.kr>)에서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한국경제신문까지 3종의 신문에 관한 기사의 제목과 본문에 “쌀 재협상”용어가 포함된 기사를 검색하여 해당 기사를 추출하였다. 농업언론으로 선정한 한국농어민신문과 농축산신문 농민신문은 위 사이트에서 각 인터넷신문 사이트와 같은 조건으로 검색하였다. 이렇게 검색된 기사 중에서 쌀 재협상이 경제적, 정치적인 부분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파장에 대한 주제로 보도된 208개의 기사를 선택하였다. 사진보도와 단신은 제외하고 스트레이트, 해설, 기획, 사설, 칼럼, 인터뷰기사 중에 선택한다.

## (3) 뉴스프레임의 개념

뉴스프레임이란, 미디어가 사건을 보도하거나 현실을 구성함에 있어 어떤 특정 사건이나 이슈를 일정한 방식으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수용자는 미디어가 만들어 놓은 일정한 틀에 따라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는 메시지의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거나 선택하게 되며 때로는 배제시키게 된다. 이러한 뉴스 틀이 함의하는 바는 언론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도한다는 것이다.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보자면 언론의 뉴스 보도 프레임은 언론의 보도 내용을 이해하

는 과정에서 언론의 현실 구성은 수용자의 현실에 대한 이해과정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요과정이 집합적으로 나타날 때, 언론이 구성한 현실에 대한 명제가 현실 그 자체가 된다. 대부분의 언론매체에서는 같은 사건이라도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주요인물의 설정, 그리고 이야기의 전개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뉴스 스토리를 구성한다. 이는 ‘독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뉴스를 이해하도록 돕는 이야기 구성 방식’에 해당되는 것으로 같은 사건에 대한 뉴스라 하더라도 언론이 갖고 있는 동기나 시각, 또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뉴스 내용의 줄거리는 특별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sup>3)</sup>

보도와 관련된 프레임 연구는 뉴스 텍스트의 생산, 소비의 전 과정과 뉴스 담론 과정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프레임 연구와 다른 연구의 차이를 알 수 있는데, 윤태선(2002)의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sup>4)</sup>

첫째, 프레임 연구는 전통적인 내용분석과는 달리 뉴스 텍스트를 객관적으로 제시되는 심리학적 자극의 수준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의미구성을 위해 개개 행위자들(저널리스트, 수용자, 정보원)과 상호작용하는 조직된 상징장치들의 구성이라고 본다.

둘째, 프레임 연구는 구조에 고착하는 구조주의적 접근과 달리, 텍스트 형성을 지배하는 규칙 더 나아가 체계의 측면과 뉴스의 능동적인 생산과 소비의 측면 모두를 아우르는 다차원적 개념을 수용하고 있다.

셋째, 프레임 연구의 타당성은 연구자의 독창적인 뉴스 텍스트의 독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에 의해 사용될 의미와 요소들의 확인을 위한 뉴스 텍스트의 체계적 자료수집 절차를 유지하는 데 있다.

넷째, 프레임 분석은 수용자와 독립적인 뉴스텍스트를 상정하지 않는다. 즉, 프레임 연구는 정보원, 저널리스트, 수용자가 사회적으로 규정된 역할에 근거하여 이 과정을 수행한다. 따라서 그들이 구성하고 전환하는 뉴스 담론에 의해 다른 행위자와의 상호작용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이렇듯 프레임연구는 그 목적에 맞춰 다양한 개념을 수용할 수 있는 총체적인 범위로 나누어 조직을 풀어 분석할 수 있게 한다. 미디어를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제공자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시 상호 소통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흐름의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이해는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여론을 유도하고 조직화하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3) 최낙진(2003), 「지역신문의 ‘핵폐기장’ 관련보도 뉴스 프레임」,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4) 윤태선(2002),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 보도 성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 석사논문

#### (4) 프레임의 구축과 분석에서의 적용

프레임을 설정하는 기준은 분석할 신문보도기사들의 주요내용을 보고 그것이 쌀 재협상에 대해 국가 간에 진행 중인 정부의 협상 행위와 이에 대응하는 정책 대상자의 반응, 이를 보는 농업과 관련 돼 있지 않은 다른 분야의 분석으로 나뉘어 있음을 파악하여 설정했다. 이런 과정으로 적용할 수 있는 5가지의 프레임을 구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중심 주제, 즉 제목이나 리드에 표현된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 ① 시장논리강조 프레임

시장의 논리에 의해 쌀 재협상을 바라보며 쌀 재협상에 대한 농민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다. 쌀 재협상이 시장에 주는 효과 즉, 농업을 국가 경제의 손익만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경제의 표면적인 부분에서만 보도한 것이다. 이런 시각은 편향적이거나 시장논리만이 강조되어 있다. 또한 쌀 재협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와 경제적 이득에 초점을 맞춘 기사이다. 거시적으로 경제 전체를 분석한 것이다.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편향적인 보도와 국내 기반산업으로 내재적 가치가 배제된 분석 등 이론적이고 분석위주의 기사가 포함된다. 주로 기사에 시장, 환율 등의 용어와 협상에 이용된 다른 시장의 상품매체가 등장한다. 정치, 경제적 성향이 강하다.

##### ② 협상관련 프레임

국가 협상 상황에 대한 정부의 진행도와 정부 협상 과정의 불가피성이 보이는 기사 프레임이다. 농민에 대한 유감스러움이 담겨있는 입장이나 정부의 국제 협상의 결과에 대한 당위적 입장 즉, 쌀 재협상과 관련된 진행 중인 협상, 정부 측과 관련된 기사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다른 국가의 상황과 입장 또한 협상 프레임에 포괄시킨다. 기사에는 협상 대표 측과 정부 관계자의 인터뷰가 기사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주로 스트레이트나 해설기사의 보도 방식을 보인다.

##### ③ 갈등 프레임

갈등프레임은 쌀 재협상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집행 당국과 농민의 대항과 같은 내

외적인 갈등기사이다. 사안과 관련된 갈등에 대한 보도로서 어떤 사안에 대한 갈등이 보도의 중심 대상이 되는 기사이다. 쌀 재협상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보도된 것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비 농업인간의 갈등일 경우와 정부의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단체인 농민 자치단체 시민운동 단체 등 정부에 대항하는 프레임으로 시위와 집회 그리고 항의의 내용을 담는 기사이다. 보도의 중심 대상에 대한 사실 보도일 경우에는 모두 이것으로 분류한다. 한편 국제적으로 협상 상황의 불투명성이나 협상국과의 갈등을 보도한 것 또한 이 프레임에 속한다. 기사에는 난항, 불투명, 어려움 등의 용어가 포함돼 있다.

#### ④ 식량주권 수구 및 생존 프레임

쌀 재협상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력의 피해와 앞으로 닥치게 될 농업위기에 대한 농업인의 입장에 가까이에서 보도하는 기사이다. 갈등 프레임에서 농민이 주장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면 식량주권 수구 및 농민 생존 프레임은 농업 위기와 관련된 문제 특히 식량문제와 농민의 생존권에 대한 기사이다. 따라서 이는 갈등보다도 농업이 현실에서 중요한 식량자원이라는 인식과 함께 우리나라의 농업이 곧 우리나라 국민의 생존과 연결돼 있다는 시각이다. 절실한 농촌과 농업 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도 포함한다.

#### ⑤ 대안제시 프레임

농업 전문인이 제시하는 대안과 농업인과 협상대표 측과 정부관계자 측의 입장을 중재하는 모든 시각을 포함한다. 대안 제시 프레임은 언론이 주체적으로 농업문제에 대한 심층기획을 했거나 전문인의 칼럼, 토론회 등의 기사이다. 문제점에 대한 소극적 보도 민원성 보도,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거나 주의를 촉구하는 기사도 여기에 속한다. 또한 쌀 재협상으로 인한 문제발생에 대한 절충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거나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한 언급을 한다.

## II. 언론 간의 쌀 재협상에 대한 보도 비중

## 1. 신문 별 보도 비중 분석

총 208건의 검색된 기사 가운데 한국농어민신문이 125%로 쌀 재협상에 대한 기사가 가장 많이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농어민신문은 종합농업전문지로서 다른 농업관련 언론인 농업전문신문들에 비해 많은 횟수로 보도했다. 농축산신문이 87.5%로 쌀 재협상을 다룬 것에 비해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만큼 쌀 재협상이 농업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문제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 전문 언론지인 한국경제신문은 27.97% 나타났으며 일간지 중에서 쌀 재협상에 대한 보도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은 이 사건이 국내·외적으로 경제적인 영향과 파장이 큰 문제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쌀 재협상에 대한 보도가 27.38% 나타났으며 이는 진보적인 언론의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선일보가 12.5%로 쌀 재협상 보도에 대해 매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조선일보가 많은 지면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sup>5)</sup> 농업에 대한 전문성에 비중을 별로 두지 않고 있으며 농업보도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보도는 보수적 언론이라는 조선일보의 사회적 인식을 주고 있으며 주류의 다른 보도에 용기를 갖기보다는 침묵을 택하도록 하는 정치적 효과를 거두는데 한몫하고 있다.

<그림 2-1> 신문 간의 쌀 재협상 보도 비율 비교

12.5%  
27.38%  
27.97%  
125%  
87.5%  
(%)

5) 현재 각 신문의 지면은 지난 월드컵 때 64면으로 증면 되었다가 2004년에 들어 신문업계들의 불황으로 58면 이하로 감면 및 감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조선일보는 36면을 발행하고 있고 한겨레신문은 32면을 발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경제신문은 유동적으로 40면 정도가 발행된다. 농업 전문지인 한국농어민신문은 16면, 농축산신문은 12면으로 발행되고 있다.

## 2. 신문형식에 따른 보도 비중 분석

신문형식은 스트레이트, 해설, 기획, 사설, 칼럼, 인터뷰 이렇게 여섯 가지의 보도 방식으로 나뉘었으며 각 형식 조건에 맞춰 기사를 분류하였다. 각 신문의 논조는 그 보도 방법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앞에서 말한 스트레이트, 해설, 기획, 사설, 칼럼, 인터뷰의 이 다섯 가지 방법은 신문에서 보도 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보도 방식이다.

전체 208건의 기사 중 약 155.2%가 스트레이트 기사이다. 스트레이트 기사는 사실보도 중심의 기사로 객관적인 사실을 나열식으로 보도하는 것이다. 현장 속에서 벌어졌던 사건, 사안에 대한 사실 보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한 사건에 대해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시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심층적인 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가시적인 사건 전달로 그치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소지가 크다. 또한 일방적 왜곡보도일 가능성이 높고 논조의 방향에 따라서만 보도될 수 있다.

상황을 보도하며 보충 설명을 함께 기사화한 해설이 52.68%로 나타났다. 해설 기사는 각 면의 해성 기사라고도 할 수 있으며 비평도 여기에 포함 할 수 있다. 농업관련 보도의 해설은 쌀 재협상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협상 상황이나 일반인들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달하고자 하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각 언론의 신문지면의 할애된 다양한 전문 분야 중에서 해설기사가 52.6%의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이 기간 동안 쌀 재협상이라는 사건이 국내외적으로 매우 과열화되어 있었던 것이었으며 큰 사회 문제로 이슈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신문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심층적으로 취재하여 보도된 기사가 36.3%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스트레이트가 155.2%라는 점에 비해 기획기사는 이보다 5배작은 비율로 나타났다는 것은 심층보도 비중이 매우 작다는 것으로 언론들이 가지고 있는 농업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설과 칼럼은 다른 신문형식들에 비하여 언론이 가진 논조를 가장 잘 드러내는 글이며 사설은 신문사의 논조, 칼럼은 기자의 논조를 드러내며 이 두개의 방향은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문 형식 중에서 22.02%정도 사설을 싣고 있었고, 의견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칼럼은 11.62%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신문형식 중에서 인터뷰는 약 1.79%정도 밖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인터뷰가 신문사의 논조에 맞는 사람을 내세워 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언론이 유도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는 데 많이 이용된다는 점에서 볼 때 가장 적게 쓰인 형식으로 나타난 것은 또한 쌀 재협상이라는 문제에 있어 국내 전문가의 언론활동이 극히 미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만큼 언론에서도 이들의 목소리를 싣는 것이 취약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2-1> 각 신문형식의 보도 비율

스트레이트		155.2%
해설	52.68%	
기획	36.3%	
사설	22.02%	
칼럼	11.62%	
인터뷰	1.79%	

<표 2-1> 신문형식에 따른 기사 비율 분류<sup>6)</sup> (%)

신문 종류	신문형식에 따라 비교한 기사 비율(기사의 수)						총 계
	스트레이트	해설	기획	사설	칼럼	인터뷰	
조선일보	4.17(7)	3.57(6)	2.38(4)	0.59(1)	1.79(3)	.	12.5 (21)
한겨레신문	13.09(22)	5.36(9)	4.76(8)	1.19(2)	1.19(2)	1.79(3)	27.38 (46)
한국경제 신문	11.31(19)	8.33(14)	.	3.57(6)	4.47(8)	.	27.97 (47)
한국농어민 신문	70.38(27)	25(5)	20.83(4)	4.17(6)	4.17(6)	.	125 (42)
농축산신문	56.25(15)	10.42(5)	8.33(4)	12.5(6)	.	.	87.5 (22)
총 계	155.2	52.68	36.3	22.02	11.62	1.79	(208)

6) 본 논문에서 제시된 모든 표에 기재된 자료는 각 신문 발행차이에 따른 상대적인 기사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선택된 기사를 총 발행 횟수로 나누어 %로 표시한 것이다. 괄호 안의 자료의 도수는 주어진 조건으로 선택된 기사의 수이다. 일간지인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과 한국경제신문은 ‘한 달에 28회 발행(한 달을 28일로 하여) \* 6개월’로 계산하여 연구기간동안 총 168회 발행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해당되는 각 신문마다 ‘선택된 기사 수/168 \* 100’ %로 계산했다. 또한 농업종합전문지인 한국농어민신문은 주간지로 ‘한 달에 4회 발행 \* 6개월’로 총 24회 발행했다고 할 수 있으며 ‘선택된 기사 수/24 \* 100’ %로 계산했다. 농축산신문은 한 주 2회 발행하고 있으므로 ‘한 달에 8회 발행 \* 6개월’로 총 48회 발행됐다. 따라서 농축산신문은 ‘선택된 기사/48 \* 100’ %로 표에 정리했으며, 5개 신문 모두 상대적인 평가로 비교, 분석할 수 있다. 괄호 안의 수는 선택된 기사의 수이다.

### Ⅲ. 언론의 쌀 재협상에 대한 뉴스프레임 분석

프레임 비율을 보면 검색된 208건의 기사를 다섯 종류의 프레임에 적용했을 때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은 31.6%로 갈등 프레임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것은 쌀 재협상이 이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가시적인 사건으로 정부와 농업 관련 단체 간의 마찰이 많았기 때문이다. 23.1%로 협상관련 프레임이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났다. 정부가 협상에 관련해 발표한 내용을 사실 보도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식량주권 수구 및 생존 프레임 16.1%, 대안제시 프레임 15.6%로 나타났다.

다른 프레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가 나온 시장논리강조 프레임은 13.6%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농업에 대한 인식이 시장 논리로 바라보기에 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효과를 높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논리강조프레임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의 경우 시장논리강조 프레임이 가장 높고 식량주권 수구 및 생존 프레임이 낮은데 반면 한국농어민신문은 이와 상반되는 보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신문의 보도에 따라 그 논조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3-1> 프레임에 따른 각 신문의 기사 비율 분류 (%)

프레임 신문 종류	프레임에 따라 비교한 기사 비율(기사의 수)					총 계
	시장논리강조 프레임	협상관련 프레임	갈등 프레임	식량주권 수구 및 생존 프레임	대안제시 프레임	
조선일보	0.6(1)	5.36(9)	4.17(7)	1.19(2)	1.19(2)	12.5 (21)
한겨레신문	1.78(3)	4.17(7)	12.5(22)	4.76(7)	4.17(7)	27.38 (46)
한국경제신문	13.10(22)	7.14(12)	6.1(10)	.	1.79(3)	27.97 (47)
한국농어민 신문	4.17(1)	16.67(4)	41.67(10)	41.67(10)	20.83(5)	125 (30)
농축산신문	2.08(1)	27.08(13)	18.75(9)	16.67(8)	22.92(11)	87.5 (42)
총 계	21.66	60.42	83.19	64.29	50.9	(208)

#### 1.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총 비율이 12.5%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선정된 5종의 신문 가운데서 가장 낮은 보도 비중 비율을 보인 것이다. 조선일보는 다른 일간지에 비해 농업에 대한 보도를 적게 하고 있으며 이는 언론이 한 사안에 대한 보도가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신문형식으로 보자면 농업에 관련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농업인, 농민 단체사람들의 시위나 집회 등의 현장에 대한 해설이나 정부입장에 관한 스트레이트 기사가 4.17%로 다른 형식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스트레이트 형식을 많이 나타내는 것은 쌀 재협상 문제를 다른 사회문제에 비해 논조가 실릴 만큼 주요한 기획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단순 보도만 함으로써 조선일보 안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인터뷰가 신문사의 논조에 맞는 사람을 내세워 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언론이 유도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는 데 많이 이용된다는 점에서 볼 때 조선일보에서 인터뷰가 단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문제보다 언론의 논조를 들어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머지 기획, 사설, 칼럼에서 각 2.38%, 0.59%, 1.79%씩 나타났다.

조선일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프레임은 협상관련 프레임으로 약 42.8%의 비율을 보였다. 따라서 조선일보의 논조는 협상관련 프레임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협상관련 프레임에서는 단편적인 쌀 재협상의 현상 나열로 그쳐 심층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으며 보도 비중도 적었다.

또한 쌀 재협상의 입장의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농민들의 입장과 그들의 목소리에 대한 보도는 사실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다음에서 갈등 프레임이 나타난 「전농트럭 한강다리 점거시위」의 기사에서 볼 수 있다. 전국농민대회 참석을 위해 전국에서 모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들이 20일 서울 도심에서 쌀 시장 개방을 반대하며 타고 온 트럭 400여대(경철추산)를 이용, 기습적인 도로 점거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이날 도심 곳곳에서 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다. (『조선일보』 2004. 12. 21)

신문 형식	프레임 시장논리강조 프레임	협상관련 프레임	갈등 프레임	식량주권 수구 및 생존 프레임	대안제시 프레임	총 계
스트레이트	.	2.98(5)	1.19(2)	.	.	4.17 (7)
해설	.	1.79(3)	1.79(3)	.	.	3.57 (6)
기획	.	0.59(1)	0.59(1)	0.59(1)	0.59(1)	2.38 (4)
사설	.	.	.	.	0.59(1)	0.59 (1)
칼럼	0.59(1)	.	0.59(1)	0.59(1)	.	1.79 (3)
인터뷰	.	.	.	.	.	.
총 계	0.59(1)	5.36(9)	4.17(7)	1.19(2)	1.19(2)	12.5 (21)

<표 3-2> 조선일보의 신문형식과 프레임 비율 분류<sup>7)</sup> (%)

<그림 3-1> 조선일보의  
신문형식에 따른 보도 비율

<그림 3-2> 조선일보의  
프레임에 따른 보도 비율

스트레이트	4.17%	시장논리강조	0.59%
해설	3.57%	협상관련	5.36%
기획	2.38%	갈등	4.17%
사설	0.59%	식량주권 수구 및 생존	1.19%
칼럼	1.79%	대안제시	1.19%
인터뷰	0%		
	(%)		(%)

7) 일간지인 조선일보는 '한 달에 28회 발행(한 달을 28일로 하여) \* 6개월'로 계산하여 연구기간동안 총 168회 발행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해당되는 각 기사마다 '선택된 기사 수/168 \* 100' %로 계산했다

## 2. 한겨레신문

한겨레신문은 총 27.38%의 보도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갈등프레임이 21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것은 한겨레신문이 진보적 성향으로 농민의 문제와 갈등을 많이 다뤘으며 기획하는데 어느 정도 비중을 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보적인 언론매체의 이미지보다도 상대적으로 다양한 입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었다. 한겨레신문이 농민이나 소수의 입장을 우선으로 한다는 언론논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주권 수구 및 생존 프레임이 적게 나타났다. 시장논리강조 프레임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은 일간지의 특수성을 잘 말해주는 것으로 일간지는 여론을 이끌어 가기도 하나 여론을 반영하고 명확한 한 방향의 입장보다도 다양한 입장이 실려야 함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갈등프레임으로 다른 다른 언론 매체들의 보도가 감정적이고 사실 전달에 그쳐 정보 이상의 가치가 없었다고 한다면 한겨레신문에서는 갈등 프레임에서도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농업인 관련 취재원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상황보도로 그치는 것이 아닌 각각의 문제의 핵심을 전달해 사건의 이해를 높였다. 이는 다른 일간지에 비해 한겨레신문만이 갖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겨레신문에서도 스트레이트기사 형식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시장논리강조 프레임은 다른 프레임에 비해 1.78%로 그 비중비율이 눈에 띄게 낮았던 반면 다른 신문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기획기사가 돋보였다.

한편 다른 매체에서 잘 나타나지 않았던 인터뷰 기사를 보도하여 전달력과 호소력을 높였다. 한겨레신문의 논조인 식량주권 수구 및 생존 프레임으로 분류됐던 「프랑스 농민운동가 조제 보베와의 대담」(『한겨레신문』 2004. 9. 13) 기사에서는 인터뷰를 통하여 쌀 개방과 쌀 협상에 대한 세계의 흐름과 대안까지도 제시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는 다른 언론에서 보이지 못했던 것으로 한겨레신문이 농업문제에 대하여 다른 일간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심층기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론의 논조를 반영하여 신문의 입장을 많이 표출해야 하는 사실과 칼럼 등에서 식량주권 수구 및 생존 프레임과 갈등 프레임이 나타나고 있었고 기획기사로 지면에서 비중이 높은 보아 쌀 재협상을 바라보는 한겨레신문의 논조는 식량 수구 및 생존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

프레임 신문 형식	시장논리강조 프레임	협상관련 프레임	갈등 프레임	식량주권 수구 및 생존 프레임	대안제시 프레임	계
스트레이트	1.19(2)	2.38(4)	8.33(14)	.	1.19(2)	13.09 (22)
해설	0.59(1)	1.79(3)	1.79(3)	0.59(1)	0.59(1)	5.36 (9)
기획	.	.	1.19(2)	2.98(5)	0.59(1)	4.76 (8)
사설	.	.	.	.	1.19(2)	1.19 (2)
칼럼	.	.	0.59(1)	.	0.59(1)	1.19 (2)
인터뷰	.	.	0.59(1)	1.19(2)	.	1.79 (3)
계	1.78(3)	4.17(7)	12.5(21)	4.76(8)	4.17(7)	27.38 (46)

표 3-3> 한겨레신문의 신문형식과 프레임 비율 분류<sup>8)</sup> (%)

<그림 3-3> 한겨레신문의  
신문형식에 따른 보도 비율

<그림 3-4> 한겨레신문의  
프레임에 따른 보도 비율

스트레이트	13.09%	시장논리강조	1.78%
해설	5.36%	협상관련	4.17%
기획	4.76%	갈등	12.5%
사설	1.19%	식량주권 수구 및 생존	4.76%
칼럼	1.19%	대안제시	4.17%
인터뷰	1.79%		
	(%)		(%)

8) 일간지인 한겨레신문은 ‘한 달에 28회 발행(한 달을 28일로 하여) \* 6개월’로 계산하여 연구기간 동안 총 168회 발행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해당되는 각 기사마다 ‘선택된 기사 수/168 \* 100’ %로 계산했다.

### 3.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의 경우 “쌀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검색하여 총 47건의 기사를 선택했으며 이를 각각의 프레임에 맞춰 분류했다. 보도비율은 27.97%로 나타났으며 한겨레신문보다는 적으나 조선일보보다는 많은 보도비율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서도 말했듯이 쌀 재협상이라는 문제가 사회 종합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경제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신문형식을 보면 스트레이트 기사가 11.31%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해설이 5.36%, 칼럼이 3.57%, 사설이 2.38%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기간 동안 기획기사와 인터뷰 형식은 쌀 재협상 보도에는 쓰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시장논리강조 프레임이 약 43%로 전체 기사 중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것은 이 신문이 시장논리에 따른 보도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장에서 경제적 실리와 국제수지에 따른 분석기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경제신문의 논조는 시장논리강조 프레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언론매체들이 프레임이 고르게 한 번씩은 나타는 데 비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프레임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한국경제신문이 농업을 다루는데 있어서의 시각이 편중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협상관련 프레임은 25.5%로 주로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 대한 스트레이트 보도 기사였다. 이것은 협상 진행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한국경제신문의 다른 신문과 두드러지게 나타난 차이가 시장논리강조 프레임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과 전체 기사 중에서 21.2%를 차지한 갈등 프레임이 국제간 갈등과 협상 결렬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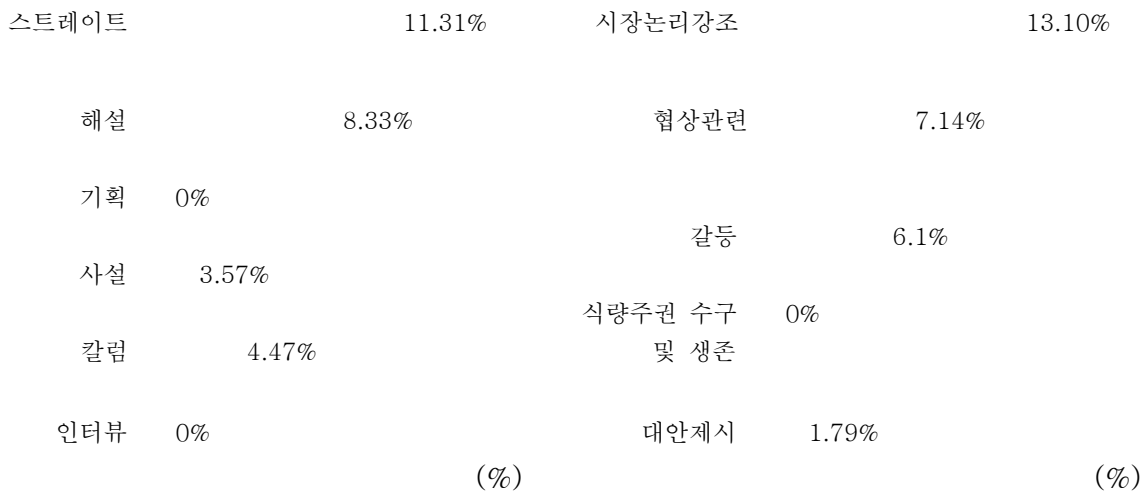
한편 국내 농업관련 사람들과 단체들이 주장했던 식량주권 수구 및 생존 프레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로 보아 한국경제신문의 논조가 국내 식량에 대한 우려와 갈등보다도 국제적인 위치와 협상을 통한 실리를 얻는다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신문 형식	프레임 시장논리강조 프레임	협상관련 프레임	갈등 프레임	식량주권 수구 및 생존 프레임	대안제시 프레임	총 계
스트레이트	2.38(4)	5.36(9)	3.57(6)	.	.	11.31 (19)
해설	5.36(9)	1.19(2)	2.38(4)	.	.	8.33 (15)
기획	.	.	.	.	.	.
사설	2.38(4)	.	.	.	0.59(1)	3.57 (5)
칼럼	3.57(5)	0.59(1)	.	.	1.19(2)	4.47 (8)
인터뷰	.	.	.	.	.	.
총 계	13.10(22)	7.14(12)	6.1(10)	.	1.79(3)	27.97 (47)

<표 3-4> 한국경제신문의 신문형식과 프레임 비율 분류<sup>9)</sup> (%)

<그림 3-5> 한국경제신문의  
신문형식에 따른 보도 비율

<그림 3-6> 한국경제신문의  
프레임에 따른 보도 비율



9) 일간지인 한국경제신문은 ‘한 달에 28회 발행(한 달을 28일로 하여) \* 6개월’로 계산하여 연구기간동안 총 168회 발행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해당되는 각 신문마다 ‘선택된 기사 수/168 \* 100’ %로 계산했다.

#### 4.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어민신문은 농업정책, 유통정보, 수산, 축산, 농산기자재, 지방소식, 사건 보도, 농어민소식 등 종합농업전문지이다. 이 신문에서는 총 30건의 기사가 검색됐으며 125%의 보도 비율을 보였다.

갈등 프레임과 식량주권 수구 및 생존 프레임이 약 33%로 동일한 비율로 보도됐으며 대안제시 프레임이 5건으로 약 16%로 나왔으며 협상관련 4건, 시장논리 강조 프레임 1건 등 다양한 프레임을 보이고 있다. 이 중 사설에 게재된 식량주권 수구 및 생존 프레임이 더 많은 비율로 나타나 한국농어민신문의 논조는 식량주권 수구 및 생존 프레임으로 볼 수 있다.

기사 방법에 있어 스트레이트 보도가 70.38%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것으로 보아 쌀 재협상이라는 다양한 분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분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논조는 사설과 칼럼에서 나타는 식량주권 수구 및 생존 프레임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 관련 단체 측의 강력한 식량주권 수구 및 생존 프레임과 이로 인한 갈등프레임이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단순 사실 보도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전달될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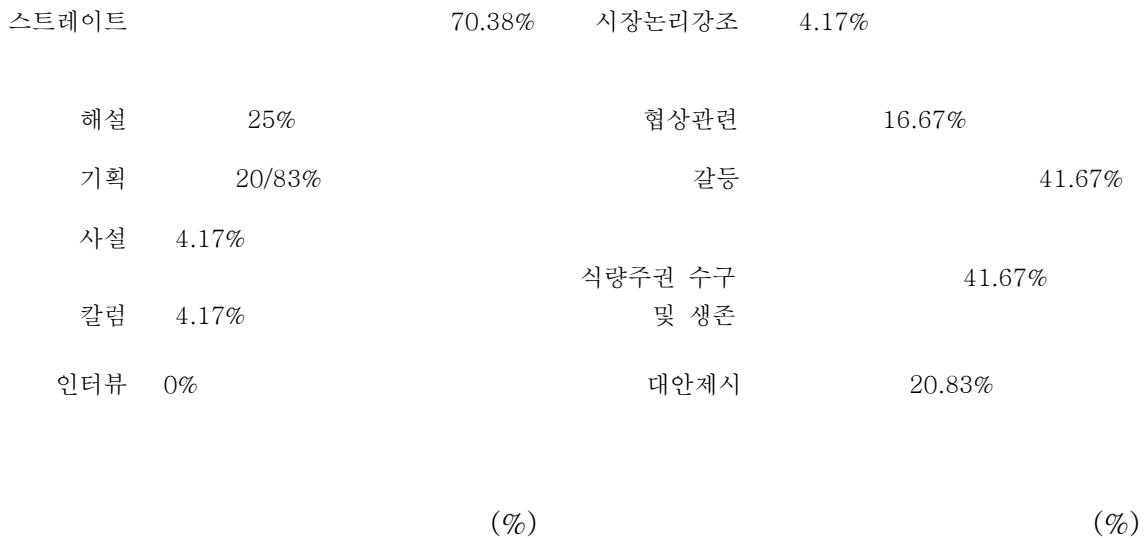
한국농어민신문은 한국경제신문과 대조적으로 시장논리 강조 프레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사회에서 과생되고 있는 다양한 시각을 신지 못하여 자칫 편향적이고 쌀 재협상의 문제가 국제관계와 긴밀하게 연관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 또한 한국농어민신문은 주로 농업관련 인사와 단체, 농민과 깊이 관련되어 있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심층적인 대안 제시 부족이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고 보도에 있어서도 스트레이트가 주를 이루고 있어 편향적인 보도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보장 받지 못했다. 이것은 쌀 재협상이라는 전문적인 분야를 독자에게 알리는 데 있어서 독자들의 이해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것은 농업전문지의 모순성을 드러내고 자가당착에 빠져 농업문제와 현실사회 간의 인식을 피리시킬 위험이 있다.

신문 형식	프레임 시장논리강 조프레임	협상관련 프레임	갈등 프레임	식량주권 수구 및 생존 프레임	대안제시 프레임	총 계
스트레이트	.	16.67(4)	25(6)	20.83(5)	8.33(2)	70.38 (17)
해설	.	.	16.67(4)	8.33(2)	.	25 (6)
기획	.	.	.	8.33(2)	8.33(3)	20.83 (5)
사설	.	.	.	4.17(1)	.	4.17 (1)
칼럼	4.17(1)	.	.	.	.	4.17 (1)
인터뷰	.	.	.	.	.	.
총 계	4.17(1)	16.67(4)	41.67(10)	41.67(10)	20.83(5)	125 (30)

<표 3-5> 한국농어민신문의 신문형식과 프레임 비율 분류<sup>10)</sup> (%)

<그림 3-7> 한국농어민신문의  
신문형식에 따른 보도 비율

<그림 3-8> 한국농어민신문의  
프레임에 따른 보도 비율



10) 농업종합전문지인 한국농어민신문은 주간지로 '한 달에 4회 발행 \* 6개월'로 총 24회 발행했다고 할 수 있으며 '선택된 기사 수/24 \* 100' %로 계산했다.

## 5. 농축산신문

농축산신문은 총 42건의 기사가 보도됐다. 이는 87.5%의 비율을 보이는 것이다. 농축산신문 또한 한국농어민신문과 같은 농업종합전문지이지만 정의는 1차 산업 종합 상업전문지로 되어 있다. 농업, 수산, 축산, 유통, 식품, 기자재 관련의 다양한 사건보도를 보다 심층적으로 하는 것이 이 신문의 특징이다.

스트레이트 기사가 56.25%를 보이고 있고 해설이 10.42% 나타났다. 신문의 논조가 드러나는 사설이 12.5%로 다른 언론에 비해 많이 보였다. 기획은 8.33% 나타났다. 하지만 칼럼과 인터뷰가 한 건도 나타나지 않고 보다 단순보도가 될 수 있는 스트레이트 기사와 해설이 많았다는 것은 다양화가 없는 보도 위주의 신문형식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형식은 독자의 이해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일간지와 기사 형식에서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반 독자층과의 거리를 만들 수 있다.

프레임은 다른 4종의 신문과 현격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프레임에 있어서는 보다 바람직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먼저 협상관련 프레임이 13건으로 27.08%를 보이며 가장 많이 나타났고 대안제시 프레임과 갈등프레임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많은 기사의 건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의 논조가 드러난 칼럼이 제일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농축산신문이 1차 산업 종합언론인 만큼 다른 농업전문지에 비하여 이 문제를 객관적 보도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경제적인 입장보다 대안 제시적인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농업전문지에서 두드러지게 높은 비율을 보인 대안제시 프레임의 차이에서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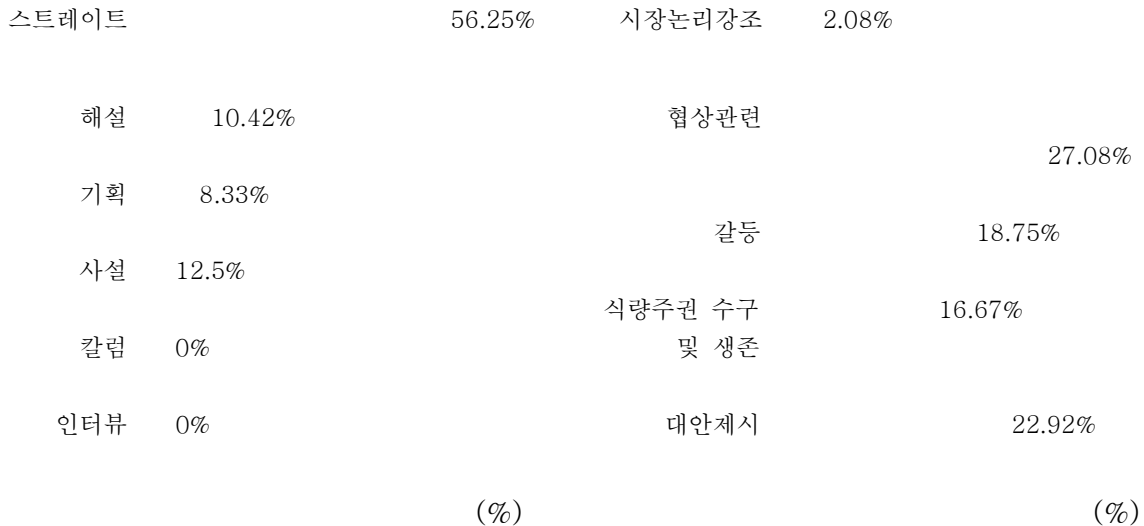
사설에서는 시장논리강조 프레임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같은 농업의 계열에 있지만 농축산 중심에서 보는 쌀 재협상에 대한 인식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신문 형식	프레임 시장논리강조 프레임	협상관련 프레임	갈등 프레임	식량주권 수구 및 생존 프레임	대안제시 프레임	총 계
스트레이트	.	25(12)	16.67(8)	10.42(5)	4.17(2)	56.25 (27)
해설	.	2.08(1)	2.08(1)	.	6.25(3)	10.42 (5)
기획	.	.	.	.	8.33(4)	8.33 (4)
사설	2.08(1)	.	.	6.25(3)	4.17(2)	12.5 (6)
칼럼	.	.	.	.	.	.
인터뷰	.	.	.	.	.	.
총 계	2.08(1)	27.08(13)	18.75(9)	16.67(8)	22.92(11)	87.5 (42)

<표 3-6> 농축산신문의 신문형식과 프레임 비율 분류<sup>11)</sup> (%)

<그림 3-9> 농축산신문의  
신문형식에 따른 보도 비율

<그림 3-10> 농축산신문의  
프레임에 따른 보도 비율



#### IV. 요약 및 결론

11) 농업종합전문지인 농축산신문은 한 주 2회 발행하고 있으므로 '한 달에 8회 발행 \* 6개월'로 총 48회 발행됐다. 따라서 농축산신문은 '선택된 기사/48 \* 100' %로 표에 정리했다.

2004년 농업계에서 가장 문제시 됐던 쌀 재협상 보도에 있어 일부 언론에서는 쌀 재협상이 앞으로 한국의 농업의 방향을 바꿀 중요한 사안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층적인 보도가 아닌 편향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극소수만 보도하고 있었다.

신문 별로 쌀 재협상과 관련된 기사를 선택한 결과, 조사기간 동안 신문별 기사 건수는 총 208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도 비중 면에서 각 신문의 건수 차이를 비교해 볼 때, 같은 시기에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형식의 차이도 신문사의 논조나 여론유도 방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23.6%로 다른 신문에 비해 보도 비중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겨레신문이 많은 보도 횟수로 나타났다. 반면, 보도 비율이 6% 나타난 조선일보는 쌀 재협상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단순히 기사 건수만 비교한다면 최고로 나타난 한국경제신문과 최저인 조선일보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문마다 보도에 있어 쌀 재협상과 관련한 취급 보도 정도를 다르게 한다는 것은 쌀 재협상이라는 국가 안보와 농업이라는 산업자체에 큰 영향력을 미친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의 태도가 불분명하거나 보도에 있어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앞에서 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논조의 극명한 차이가 보이는 것은 단연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이다. 서울 시내 곳곳 전농에서 벌인 차량시위로 혼란했던 사건을 2004년 12월 20일자 한겨레신문의 표제는 「“아저씨 차 유리창 부숴버립니다”, 전농, 쌀 개방 반대 서울 곳곳 차량시위...경찰, 차량 부수며 연행」이라고 게재되었으며 이는 경찰의 과잉진압과 농업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식량주권 수구 및 생존 프레임으로 논조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반면 같은 날 같은 사건에 대한 보도를 조선일보에서는 「전농 트럭 한강다리 점거시위」라는 표제를 달아 이날 있었던 시위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것과 시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정부 측의 입장을 내세워 같은 갈등 프레임으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언론의 논조에 따른 보도방향이 확연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일보의 쌀 재협상 관련 기사의 낮은 보도비중은 신문의 정치 경향과 농업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한겨레신문의 시리즈 연재 기사 등 심층적인 기획기사가 돋보이긴 하지만 국제적인 영향력과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부족하다.

한국경제신문은 거시적인 시장경제 측면에서의 분석이 다수 있지만 사실 보도이외의 해설 기획이 부족하고 대안제시 프레임이 현저히 낮다. 이와 같이 신문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 기간에 쌀 재협상에 관련된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부족한 면은 모든 언론에서 다분히 드러나고 있다. 이는 농업이 언론효과에 가지는 기대를 언론매체는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협상의 내용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했다는 점,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공익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농업과 연관하여 국내 언론이 지닌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협상 내용 및, 이와

관련된 대안과 입장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기사 작성 시 이해당사자의 가치 판단적인 의견 제시는 통제시키는 반면,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보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국내 신문은 쌀 재협상이 우리 식량공급으로 미치는 사회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중 언론 매체를 통해 농업 분야의 정보나 논쟁을 접하게 되는데 특히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도시와 농촌의 생활권이 이분화 되면서 농업과 관련된 기사를 보고 그 상황이나 사건을 파악하게 된다. 따라서 언론매체에서 다루지는 농업과 연관된 보도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영향력이 높으며, 일반인의 정보 의존도 또한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보도 내용은 때로는 논쟁의 방향성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와 입장이 얽혀 있고 전문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본 연구가 각 언론들의 특성에 따라 가지는 농업문제의 보도 성향을 분석하여 거시적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으나 의욕만 앞섰을 뿐 좀 더 심층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대중적 상징매체들의 사건 보도 영향력의 차이가 있으나 인터넷 신문보도를 전체 신문의 성향이라고 확대 해석한 것과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문제를 지적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이라는 상징매개와 농업 문제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목적에 근접한 성과를 나타냈다.

앞으로 농업에 대한 보도에서 언론은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제,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업을 주제로 시의적절하게 제기하여 사람들에게 주위를 환기시키고 사회적인 논의를 촉발시켜 공론화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농업인과 비농업인, 특정 집단의 견해들 사이의 경합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핵심 쟁점을 부각시켜서 농업이 단순히 한 사양분야로 특수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사회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쟁이 될 수 있도록 마당이 되는 역할, 그리고 자본의 논리가 결합된 거대한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과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농업의 공익성을 확보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신문형식 참고】

### <신문기사의 형식>

1. 스트레이트 - 사실보도 중심의 기사. 객관적인 사실의 나열이나 보도.
2. 해설 - 각 면의 해성 기사로 '초점', '해설'과 같은 컷을 가진 기사나 단선BOX, 제목을 가진 기사. 방송, 신문 관련 비평도 여기에 포함.
3. 기획 - 기획·특집기사 및 기획 연재물·탐방기사 등으로 명시된 기사나, 소개, 인터뷰 등의 경우도 포함(단, 소규모 그룹의 연례적 혹은 일회적 행사 내용에 대한 기사는 '행사기사'로 분류.
4. 사설 - 사설이 신문사의 전체적인 논조가 담긴 글이며 사설이라고 명시된 기사.
5. 칼럼 - 인사의 기명과 함께 칼럼 또는 시론이라고 명시돼 있거나 논평한 것, 사설, 해설, 기획 기사가 아니면서, 어떤 사안에 대한 논평, 의견, 감상이 제시된 기사.
6. 인터뷰 - 특정 인물이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기사.

### <보도기사의 접근 방식>

스트레이트, 기획기사, 해설, 사설, 인터뷰, 칼럼의 경우에만 분류하고 접근 방식의 경우도 중심주제, 즉 제목이나 리드에 표현된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1. 사안에 대한 사실 보도 : 사안에 대해 사실 위주로 보도하는 기사. 갈등 요인이 언급되어도 보도의 중심 대상이 사실 보도일 경우에는 이 유목으로 분류.
2. 사안과 관련된 갈등에 대한 보도 : 어떤 사안에 대한 갈등이 보도의 중심/대상이 되는 기사.
3. 문제점에 대한 소극적 보도 : 민원성 보도,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거나 주의를 촉구하는 보도 제보나 탐사를 통해 숨겨진 비리나 문제점을 밝히는 '사회고발성' 보도, 정책적 제언도 여기에 속한다.

### 【참고 문헌】

김기태(2001), 「논조의 일관성 감시와 비평」, 매체비평다시읽기, 5월 365호

- 김영옥(2000), 「지역공동체와 저널리즘 -지역신문 내용분석」, 한국언론재단
- 문지영(2003), 「신문의 여성 관련 보도 프레임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논문
- 박선희(2001), 「언론개혁에 관한 인터넷 뉴스프레임 분석」, 『한국방송학보』 통권 15-2호
- 박정의(2004), 「정치인 홈페이지 프레임 분석」,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
- 박흥원(2001), 「대북정책과 언론-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보도내용 비교분석」,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보도내용 비교분석, 한국언론재단
- 유권하(1999), 「신문의 뉴스프레임 연구」,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논문
- 윤태선(2002),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텔레지번 뉴스 보도 성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논문
- 이범수(1995), 「신문에 나타난 지역균형개발담론의 구조와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논문
- 인준웅(2001), 「갈등적 이슈에 대한 뉴스프레임 구성방식이 의견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제46-1호
- 최낙진(2003), 「지역신문의 ‘핵폐기장’관련 보도 뉴스프레임」,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 김동춘(2001), 「왜 언론이 열려야 하는가?」, 당대비평17호 - 2001년 겨울, 생각의 나무

## 【참고 인터넷 사이트】

대외경제연구원 <http://www.kiep.go.kr>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http://pcafr.go.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http://www.krei.re.kr>  
뉴스 전문 검색 사이트( <http://www.kinds.or.kr> )  
농민신문 <http://www.nongmin.co.kr/>  
농축산신문 <http://www.aflnews.co.kr/>  
한국농어민신문 <http://agrinet.co.kr/>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프레임 연구를 위한 블로그 <http://blog.naver.com/su808/>